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11/17~2025/11/23]

2025.11.24

[로봇] 또 한 번 감속기의 시간

- 에스피지, LG와 액츄에이터 협력, 휴머노이드 액츄에이터 양산으로 주목
- 피지컬인텔리전스 기업가치 56억달러 + 선데이로보틱스 로봇 출시 + 유니트리 예심 통과
- 논란의 중심에 선 피규어 AI, 휴머노이드 안전성 문제 대두

[방산] 아직은 불확실한 방향성

- 대통령 중동 순방에서 UAE 150억불 수주 가능성 높이고, 이집트 FA-50 & 천검 기대감 ↑
- 폴란드 1차 사업 상당 부분 마무리. K-9 200대 인도, K-2 180대 인도 완료
- 미국의 러-우 전쟁 새로운 종전안 제시, 젤렌스키는 망반발

[항공] 중국의 한일령

- 부산-광 노선 수요 부진. 공급 의무 부과 속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 논란
- 파라티항공, 국제선 취항. 일주일만에 무더기 결항에 논란
- 일-중 관계 악화일로. 일본 여행 취소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중국인 수요

[조선] 구체화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 삼성중공업 컨테이너선 7척 1.9조원 수주하면서 올해 상선 수주 목표 달성
- 加 잠수함 입찰 평가 유지보수 50%/성능 20%/재무역량 15%/경제적 이익 15% 배점
- 미국 LNG 수출 승인 권한을 DoE에서 FERC로 이전을 추진. 신속한 심사 기대



Weekly Keyword

또 한 번 감속기의 시간

로봇 분야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감속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음. 시장 관심이 높은 액추에이터도 결국은 감속기 등 요소 부품의 성능에 좌지우지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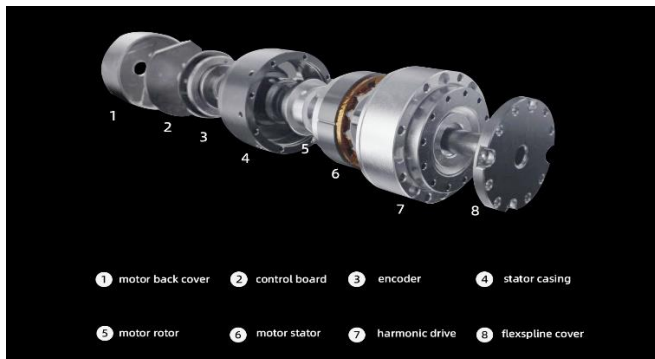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04)

[또 한 번 감속기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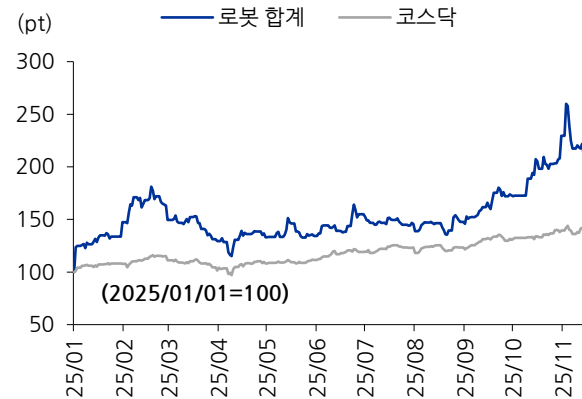
- 지난 주 국내 로봇 क्षेत्र에서는 감속기 관련 기업(에스피지, 에스비비테크)의 주가가 강세를 기록. 트리거는 에스피지-LG의 액추에이터 개발 협력 소식(에스비비테크도 현대차 로보틱스랩과 모베드용 감속기 협업을 추진 중). 2025년은 액추에이터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강하고, 감속기는 상대적으로 소외받았음. 재평가의 요인으로 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고려됨.
- 액추에이터는 모터와 감속기, 센서의 결합체. 액추에이터 자체도 중요 하나, 액추에이터의 성능은 하위의 모터/감속기 등 기술 요소에서 비롯됨. 오히려 코어는 하위 요소 부품에 있을 수 있으며, 그 중 원가 비중과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감속기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는 판단.

Key Chart: 액추에이터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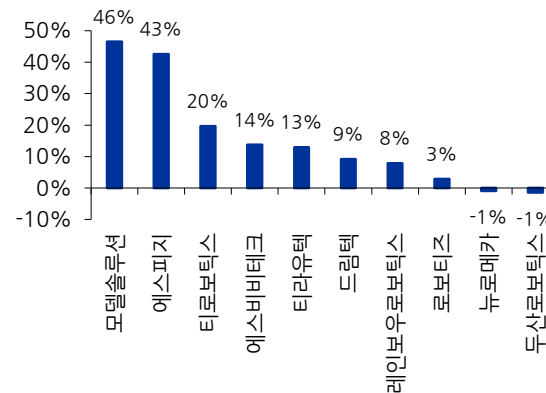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11/17~11/23)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韓 제조업 로봇 밀도 '마의 1000대' 세계 최초 돌파
- 티로보틱스, 북미 '車 부품 공정 AMR' 추가 수주
- 네이버, 자율주행 로봇 '루키2'로 사우디·일본 공략

[휴머노이드]

- 에이로봇, 엔비디아 'AI 데이' 최종 5개사 선정

[부품/SW/기타]

- 삼성 "VLA 로봇, 작업성공률 95% 확보. 현장 적용 박차"
- 삼성전자·엔비디아,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
- 에스피지, LG와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 협력
- 에스피지, 내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양산
- CJ대한통운, 리얼월드와 물류 AI로봇 개발 협력 MOU
- 리얼월드, MS와 로봇 학습 가속화
- 한국피아이엠, '휴머노이드 손' 소재 상용화 논의 진행
- 유일로보틱스, 청라 신공장 오픈식 성료
- 한라캐스트, 휴머노이드 AI 로봇 부품 진출 성공

[Global]

- 中 유니트리, IPO 예심 4개월 만에 통과
- 구글 딥마인드, 보스턴 다이내믹스 전 CTO 영입
- 선데이, 바퀴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메모' 공개
- 오픈마인드, 로봇에 자율 기능을 부여하는 브레인팩 출시
- "로봇이 사람 두개골 깰 수 있어" 피규어 AI, 前직원에 피소
- 피규어 AI, 11개월 간 '피규어 02' 시범 운영 종료
- 피지컬 인텔리전스, 56억달러 밸류에 6억 달러 유치
- 북미 산업용 로봇 시장, 3분기 매출 전년비 +17%



Weekly Keyword

아직은 불확실한 방향성

한국 방산이 글로벌 방산 강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지난 주 미국의 사우디 항 F-35 & 에이브람스, 독일의 루마니아 장갑차 & 전차 판매 추진 소식. 경쟁 환경은 한층 격해지고 있음.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52)

[아직은 불확실한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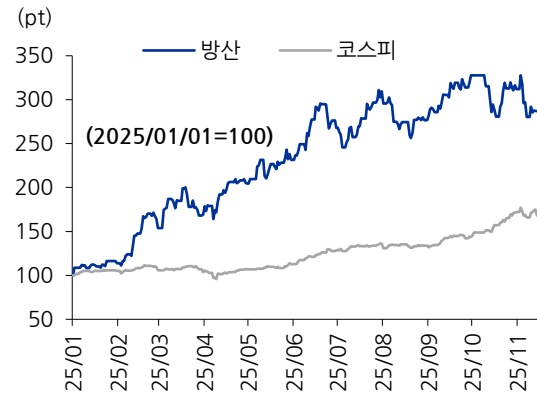
- 방산 업종에서는 수주 가능성에 대한 아직 명확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고 있음.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UAE 항 KF-21 등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 가능성 높아지고, 이집트 FA-50 & 천검 수출 기 대감도 커졌으나 아직 확정 계약 단계는 아님.
- 그 외 수주 기대감 높았던 여러 파이프라인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포 착되고 있음.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확정은 아니나 독일 라 인메탈의 링스 장갑차 선정이 유력하다는 외신 보도가 있음. 독일이 루마니아에 화약공장 설립하면서 전차 사업도 위협. 사우디의 경우 빈 살만 왕세자이 미국 방문에서 F-35 판매 약속을 받고, 에이브람스 전 차 300대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의 KF-21 및 K-2 수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 대두.
- 그나마 좋았던 이슈는, 노르웨이 MLRS 도입 사업에서 독일이 탈락하 고, 한국의 천무와 미국 하이마스가 최종 경쟁을 하게되었다는 보도. 이마저도 아직 미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남아있음. 여러모로 난관 에 부딪히는 한국 방산이지만, 이 고비를 넘어서면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

Key Chart: 라인메탈의 포부(따라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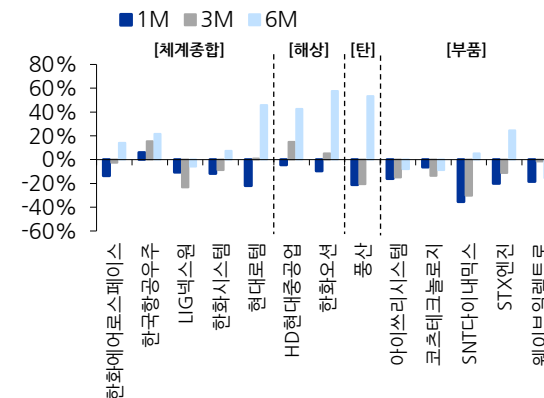
CMD 제시 목표	2024	2025	2030
매출액	98억유로	+35~40% 성장	~500억유로
영업이익률	15.2%	~15.5%	>20%

자료: 라인메탈,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11/17~11/23)

[수주/계약]

- 노르웨이 MLRS 입찰서 독일 탈락. 천무·하이마스 2파전
- 레드백 70% 현지화 제안. 한화에어로, 루마니아 수주 사할
- 루마니아, 레드백 대신 라인메탈 장갑차 도입 전망
- 대통령실 "UAE 150억불 방산 수주 1제3국 공동수출 추진"
- 이집트 FA-50·천검 세일즈. 작년 천검 1차 평가 통과
- 삼양컴텍, 50억원 수출형 K2 전차 방호력 성능 개량 계약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엔진 록히드마틴 무인편대기 탑재 가능성
- 한화, UAE 방산기업과 '국방 AI 플랫폼' 개발 맞손
- LIG넥스원 "루마니아 다음 발트 3국". 유럽 수출 드라이브
- KAI 사장 5개월째 공백. "올해 안에 선정될 듯"
- 현대로템, 해외사업 전면 재편. 미래신사업추진실 신설

[기타]

- 신임 방사청장 "수출 200억 달러, 글로벌 점유율 5% 목표"
- 인니, KF-21 분담금 1,113억 납부. 잔액 내년 완납 전망
- 李대통령, 獨총리에 "韓 방산, 독일과 협력에 관심 커"
- 폴란드 K-9 자주포 21문 추가 인도, 총 200문 돌파
- 폴란드 K-2 전차 1차 이행분 180대 전량 인도 완료

[글로벌]

-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역 공습 "하마스가 휴전합의 위반"
- 미러 새 종전안, 우크라 영토양보군 절반축소 포함
- 두바이 에어쇼에서 인도 전투기 테자스 추락
- 라인메탈, 2030년까지 매출 5배 성장 목표
- 사우디에 F-35 및 에이브람스 전차 구매 추진

안녕하세요 항공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중국의 한일령

일본 총리의 대만 자위권 개입 가능성 발언에 한일령이 발동. 중국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감축 조치와 중국 여행객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이어지면서 한국이 낙수효과를 볼 것이란 기대감 형성 중.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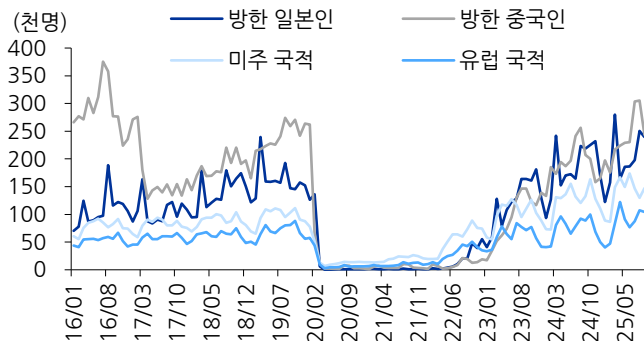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2)

[중국의 한일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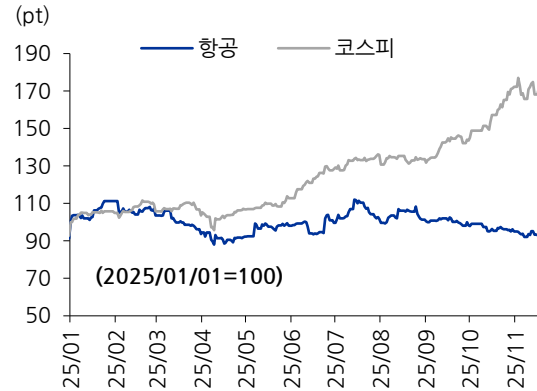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개입 가능성' 발언에 일본과 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
- 이에 중국 외교부는 자국민에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 중국국제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감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SCMP는 18일 보도를 통해 15일부터 일본 노선 티켓 49만건이 취소되었다고 전함.
- 일본 여행의 대체재로서 한국 방문에 대한 관심이 폭주. 9월말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정책과 맞물리면서, 항공 업종에도 한중 노선 여객 수요 강세 전환으로 일부 낙수 효과가 기대됨. 다만, LCC 보다는 주요 간선 노선의 운수권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항공 등 FSC 중심 수혜가 예상됨.

Key Chart: 방한 외국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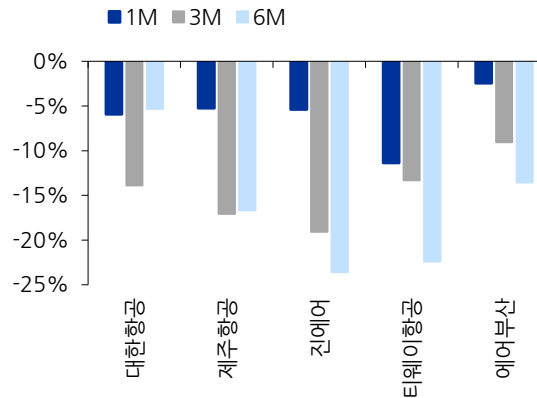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11/17~11/23)

[여객/화물]

- 180석 부산~광 여객기에 승객 3명 '넙코노미'
- 에어부산, 부산-하노이 노선 6년 만에 재개
- 대구~홍콩 정기노선, 다음 달부터 주 7회로 증편
- 파라타항공, 인천~나리타 신규 취항
- 취항 일주일만에 파라타항공, 日 노선 무더기 결항
- 파라타항공, 벨리카고 사업 시작. 첫편 화물 완판
- 제주항공 1~10월 中노선 여객 전년 추월. "무비자 효과"
- '노재팬' 나선 中 여행객들, 대신 우르르 한국행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통합 항공사 출범 앞두고 수시 인사
- 대한항공, 삼성E&A와 맞손. 해외서 SAF 공급망 구축
-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 6년 만에 연간 흑자 눈앞
- 티웨이항공, 동남아 노선 비즈니스 확대. "비수기 대응 전략"
- 티웨이항공, 자본확충 한 달 만에 '재무 경고등' 다시 켜져
- 에어프레미아, 예비엔진 4호기 도입. 운항안정성 강화

[기타]

- 뉴노멀된 고환율. 항공사 "비행기 리스 대신 직구"
- LCC, 인니 자카르타에만 몰렸다. 美 광시애틀은 '외면'
- LCC 3사 임협 막바지.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 잠정합의
- 에어버스, 국내 첫 테크센터 구축. "아시아 핵심 거점"

[글로벌]

- 中 항공사들 일본노선 대폭 축소. "춘제 연휴기간도 포함"
- UAE 플라이드바이, 35조원 에어버스A321 150대 주문
- 구글, AI 항공권 검색 '플라이트 달' 전세계 출시



Weekly Keyword

구체화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캐나다 잠수함의 입찰 평가 지표가 공개됨. 잠수함 그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후속 유지보수와 캐나다로의 철충교역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G2G 레벨의 협업이 필요할 전망.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2)

[구체화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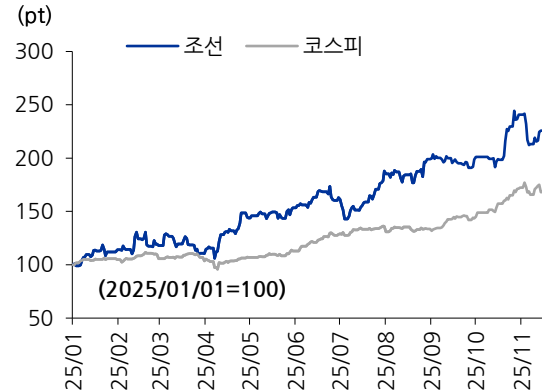
- 캐나다가 잠수함 도입 관련 입찰 평가지표를 공개. 참고로 캐나다가 발행한 잠수함 사업 RFP 마감일은 2026년 3월.
- 이번 평가 지표에서 캐나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유지보수 패키지)과 캐나다로의 경제적 이점(철충 교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평가 배점은 유지보수 50%, 성능 20%, 재무 역량 15%, 경제적 이익 15%씩 배분되어있음.
-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히 기업의 노력과 무기 체계의 성능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님. G to G 레벨의 협업이 중요할 전망.

Key Chart: 캐나다 잠수함 필승 전략(업계 관계자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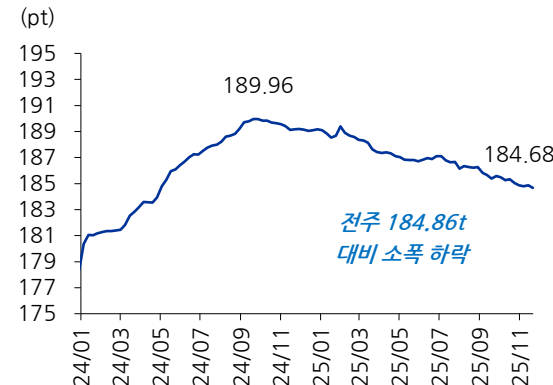
구분	코멘트
유지보수 패키지	■캐나다의 30년 장기 운용 지원 체계를 구축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북극해 포함 3개 해역에서 즉각 대응 가능한 지원 체계 제시.
경제적 이익 (철충교역)	■캐나다 정부가 사업비 100%에 해당하는 철충교역을 요구 ■한화오션은 12개 이상의 현지 기업과 협력 중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방산 제품 외 다른 분야 협력이 필요.
재무역량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 체제로 재무 안정성 입증 및 한국 정부의 공적 보증 활용.
플랫폼 성능	■KSS-III의 검증된 성능(3주 잠항, 7000해리 항속거리)을 기술적 우위로 입증.
조기 납기	■2032년 첫 인도 제안으로 노후 잠수함 유지비 절감 및 전력 공백 해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캐나다와 장기적 전략 동반자 관계 구축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

자료: 글로벌이코노믹,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11/17~11/23)

[상선/해양]

- 삼성중공업, 컨테이너선 7척 1.9조원 수주
- 한화오션 단골선사, HD현대삼호에 LNG선 2척 발주
- HD한국조선해양, PC선 2척 2194억에 수주
- 한화오션 수주 '노르웨이발 LNG선 4척 선주사 윤곽'
- 대한조선, 올해 수주액 1조 4,700억. 전년 대비 20% 증가

[특수선]

- 캐나다, 62조원 잠수함 입찰 '유지보수 50% 평가'
- HD현대중SIMA, 페루 해군 다목적 호위함 건조 본격 돌입
- 내년부터 한국도 美 전투함 MRO 수주 가능 전망
- 한화오션, 지역 조선소-정비업체와 美 함정 MRO 일감 나눠
- 장보고-계 잠수함, 2033년까지 성능개량 본격화
- 韓 첫 잠수함 '장보고함', 마지막 항해
- HD현대, 美 방산기업 안두릴 자율 무인수상함 건조

[기타]

- 美상무부, HJ중공업 영도조선소 방문. 상선 건조 협력 논의
- 태광, 美 TPG와 손잡고 케이조선 인수전 참전
- 한화오션 美법인, 1조 실탄 마련. 제2 필리 확보 나서나
- 오스탈 인수 9개월째 '멈춤'. 호주 CEO "총리 만나겠다"
- 한화오션, 해양육상 통합해 조직 개편. 부진 탈출 노력

[글로벌]

- 벤처글로벌, Plaquemines LNG 생산량 두 배 확대 추진
- 美 LNG 수출 승인 권한 DoE에서 FERC로 이전 추진
- TKMS, 독일 조선소 인수로 생산능력 확대